

세계 경제 동향

○ 미·이란 재충돌 격화, 미국 이란 공습 재개 ■ '26-7-15 CNBC

- 미군 중부사령부(CENTCOM)는 7월 15일 하루 두 차례 이란 공습을 단행 — “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을 위협하는 이란 군사능력”을 표적으로 대툰브섬의 해안방어체계·순항미사일 시설 등을 정밀타격
- 지난해 상선 피격에 대한 보복 공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“휴전은 끝났다”고 밝히는 등 6월 중순 서명된 양해각서 상 임시 휴전 균열 심화
-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 상회 수준에서 상승세. 호르무즈 통행료(20%) 부과 위협·철회 등 정책 혼선으로 해운업계 불확실성도 가중
- ❖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 흐름이 되돌려질 수 있는 만큼 국제 에너지·원자재 가격 모니터링 강화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○ 미국,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발표 ■ '26-7-10 USDA; '26-7-12 가디언

- '26년 7월 10일 미국 농무부(USDA)는 2026/27년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발표함.
- (생산량) 전년 대비 2.1% 감소한 29억 5천만 톤으로 전망됨. 품목별로는 소맥(-2.8%), 잡곡(-2.0%), 쌀(-1.6%)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든 전망이다.
- (총공급량 = 생산량 + 전년 기말재고량) 전년 대비 0.9% 감소한 37억 6천만 톤으로 전망됨.
- (소비량) 전년 대비 0.1% 증가한 29억 8천만 톤으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1%(3,547만 톤) 초과할 전망이다.
- (교역량, 수출량 기준) 전년 대비 5.1% 감소한 5억 2,824만 톤으로 전망됨.
- (기말재고량) 전년 대비 4.4% 감소한 7억 7천만 톤으로 전망됨.
- (기말재고율 = 기말재고량/소비량) 전년 대비 1.2%포인트 하락한 25.9%로 전망됨.
- ❖ 세계 곡물 공급 감소가 전망된 가운데 슈퍼 엘니뇨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상존, 수급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○ '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 소폭 증가 ■ '26-7-14 농림축산식품부

- '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결과 전년 대비 접수 건수 0.2% 증가, 접수 면적 2.3% 감소, 접수 금액 0.5% 감소
- 접수 건수(만 건): 132.5 ('24) → 133.0 ('25) → 133.2 ('26)
- 접수 면적(만 ha): 110.5 ('24) → 107.1 ('25) → 104.6 ('26)
- 접수 금액(억 원): 23,995 ('24) → 24,860 ('25) → 24,724 ('26)
- 건수 증가는 귀농인구 증가(전년 대비 8.5%, 1만 1,617명)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*에 기인하며, 면적 감소는 농업인 감소 및 농지전용 등에 따른 신청대상 농지 축소가 원인으로 파악됨.
- * 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: (당초) 3,700만 원 이상 → (개정) 4,300만 원 이상
- 농식품부는 직불금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임.
- 지급률(=지급 규모÷접수 규모, %): ('24년) 건수 96.9/면적 97.4/금액 96.2, ('25년) 건수 96.6/면적 97.6/금액 95.9
- ❖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농지 전수조사 연계 실경작 현장 확인 등 체계적 점검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● 기준금리 2.75%로 0.25%p 인상 | '26-7-16 한국은행

-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.50% → 2.75%로 0.25%p 인상(금통위원 7명 전원 찬성). 수출·투자 중심의 성장세 강화,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물가, 금융안정 리스크 지속을 배경으로 제시했으며,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1.00% → 1.25%로 인상
 - 향후 "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"며 추가 인상 시사
 - 올해 성장률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5월 전망치(2.6%)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. 물가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오름세 지속과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 확대로 3.2%까지 높아진 가운데, 국제유가 하락에도 그간 높아진 비용·환율의 영향과 수요측 압력 확대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
 -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 2.7% 부합, 근원물가는 5월 전망치 2.4% 상회 예상
 - 금리인상 기대를 선반영하며 시장금리는 연초부터 상승. 국고채 3년물은 '25년말 2.95% → 7월 15일 3.87%로 92bp 상승(10년물 3.39% → 4.33%). 기업 조달비용을 보여주는 회사채(3년, AA-)는 3.46% → 4.57%(+111bp)로 더 크게 상승
 -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(6월 +7.6조원)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도 확대되어 금융안정 유의 필요성 지적
 - 원/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·달러 강세로 1,500원대 중반(6월말 1,549.4원)까지 높아졌다가 외환수급 개선으로 1,400원대 후반으로 하락
- ❖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어 농가 정책자금·경영자금의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이차보전·정책자금 금리 등 농가 금융부담 완화 방안 점검 필요

■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(기말 기준, %)

구분	'25년말	'26년 3월말	'26년 4월말	'26년 5월말	'26년 6월말	'26년 7월 15일
기준금리	2.50	2.50	2.50	2.50	2.50	2.75*
국고채(3년)	2.95	3.55	3.60	3.73	3.70	3.87
국고채(10년)	3.39	3.88	3.92	4.07	4.09	4.33
회사채(3년, AA-)	3.46	4.18	4.25	4.34	4.38	4.57

* 7.16일 기준

■ '26년 2~7월 원/달러 환율 추이

(단위: 원/달러)

